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1년 3월호 / 통권 286호

발행일 2021년 3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1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86 | MARCH 2021

| | |
|---------------|--|
| Editor's Note | 4 |
| 특집 |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
| 함께 읽는 성경 | 12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
| 전례와 생활 | 16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히든카드? 2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 교회의 가르침 | 24 기도학교 30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5 |
| 신앙과 삶 | 34 코로나19 시대에도 선교는 진행형! |
| 듣다 읽다 보다 | 36 고전음악을 듣다 42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0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6 티나씨의 티비보기 58 성미술 이야기 |
| News & Views | 61 후원방법 및 소식 |



THE COVER

장발(루도비코, 1901~2001) 화백이 1928~1929년 사이에 그린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초상화.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봄을 시샘하던 동장군의 마지막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증가하고,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70%의 국민이 접종하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작년보다는 덜하지만 1년 이상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혹시 『가톨릭 직장인』 애독자 가운데서도 코로나 블루(우울증)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집콕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소개되는 홈 트레이닝을 따라 한다면 집 주위를 가볍게 걷기 등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합니다. 이는 항우울제가 뇌에 미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덤으로 질 좋은 수면과 식욕 개선도 얻게 됩니다.
2.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최선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결정 과정 자체가 우울증이 지배하는 몸에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기 통제력, 성취감을 느끼면 걱정과 불안이 완화됩니다.
3. 잘 잡니다. 질 좋은 수면은 멜라토닌을 증가시켜 렘수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침 시에 스마트폰 사용, 밝은 조명 등과 같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나 환경을 피하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4. 긍정적인 몸짓을 실천합니다. 작은 몸짓이 뇌를 변화시킵니다. 뇌는 신체의 상태를 항상 관찰합니다.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표정이 밝으면 우리 뇌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5.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결되며, 세로토닌(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정서작용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늘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는 친지나 친구, 또는 본당의 형제자매들에게 감사 마음을 문자나 카톡 등의 SNS로 보내세요. 연민과 존경 그리고 유머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일, 곧 안부 묻기나 기부, 선행, 명상, 신앙의 재발견 등을 통해 사회 네트워크를 재구성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지켜왔던 일상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불안 같은 감정이 눈덩이처럼 뭉쳐져 악순환 고리 속으로 빠져들면 나오기가 힘들니까, 작은 행복을 누리는 일상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치지 말고 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가톨릭 직장인들 되세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덧붙이는데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너우식 노파심에서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김대건(4) : 부제 서품 직전의 '훈춘 기행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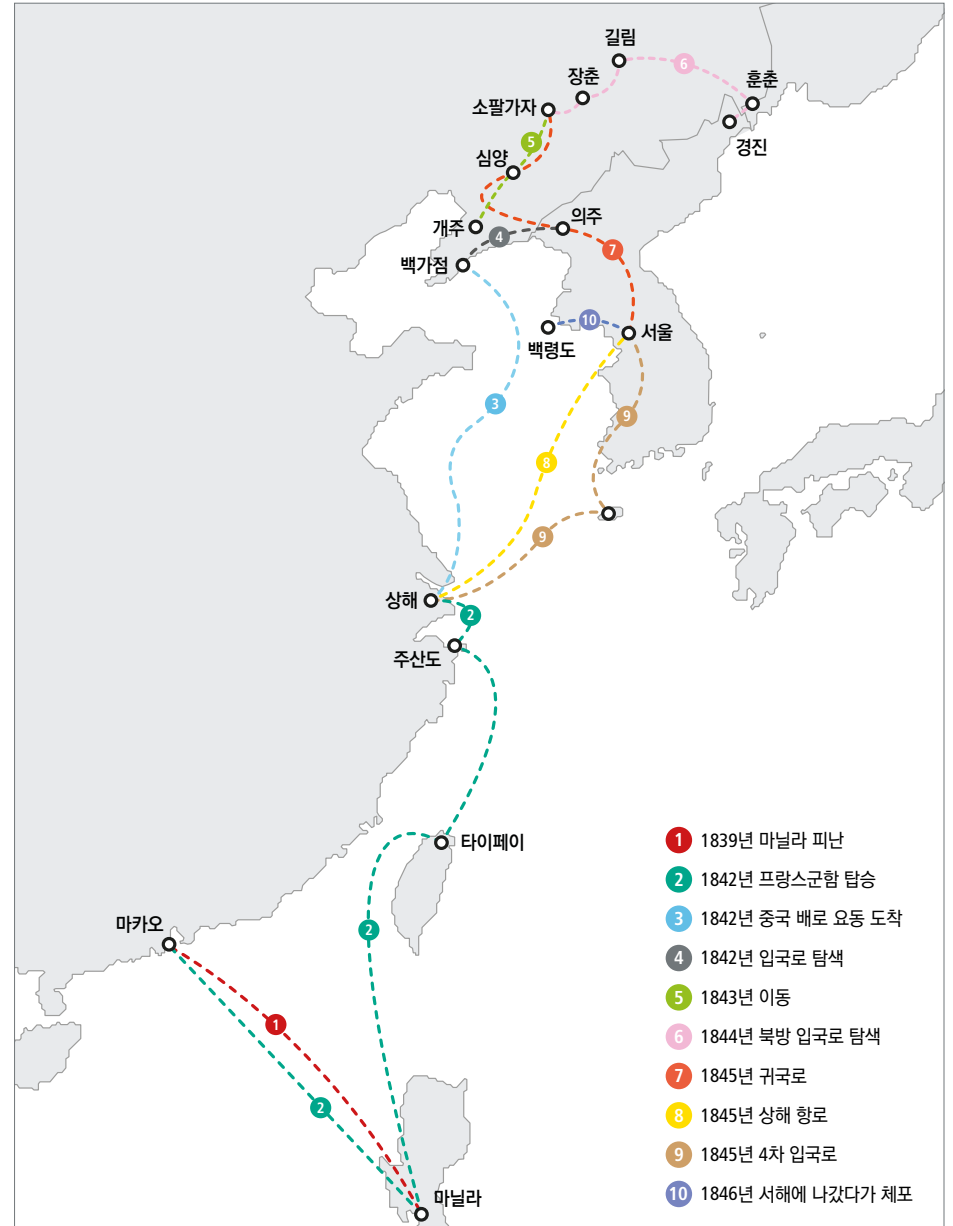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실 제독의 통역자격으로 활동한 김대건 신 학생은 해로(海路)를 통한 조선 입국이 어려워지자 요동(백가점)을 거점으로 하여 다시 육로로 조선에 들어가고자 했다. 1842년 12월 23일에 출발하여 변문 근처에서 북경으로 가는 조선 사신들을 만났다. 하느님의 섭리로 그는 김 방지거를 만났다. 김대건이 15세 소년으로 마카오 유학길에 오를 때 동행했던 신자 가운데 한 명이였다. 김 방지거는 조선에서 벌어진 기해박해 중에 선교사들과 부친 김제준 이나시오가 순교했음을 알려주면서, 세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들을 김대건

에게 전해주었다. 김 방지거는 국경을 통과하기는 어렵고, 다만 가난한 나무꾼 행세를 하면서 입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 김대건은 그 말을 듣고 조선옷으로 갈아입은 후 단독으로 조선을 향해 출발했다. 나무꾼 행세를 위해 칼을 준비했으나 중간에 잃어버리고, 단지 금괴와 은괴를 옷 품에 숨겨 들어갔다. 세관에는 마침 소떼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어서 그 틈을 타 통과할 수 있었다. 밤새도록 100리를 넘게 걸어가다가 몸을 녹이려고 조그마한 집에 들어갔으나, 그곳 사람들이 김대건을 수상하게 여겨



김대건·최양업 신학생의 만주 진입 경위도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김대건(4) : 부제 서품 직전의 ‘훈춘 기행문’

서 한양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백가점 교우촌으로 돌아왔다.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측 변문에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의 몰골을 보고 비웃었다. 그럼에도 1월 6일에 무사히 백가점 교우촌에 도착하여 메스트르 신부와 합류하였고, 다시 3월에 김 방지거를 만나 조선에 들어가기에 기다렸다.

그 시기 제3대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던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학생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메스트르 신부는 (김대건) 안드레아와 함께 거지로 변장하여 음력 11월 이전에 조선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 김 방지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꿰어오르는 열정에 이끌려 안드레아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거지가 입을 법한 납루한 옷을 서투르게 바느질하여 옷 안쪽에 은 100테일과 금 40테일을 숨기고 출발했습니다. ... (최양업) 토마스는 북쪽 지역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 ... 만일 그가 한 살만 더 많았다면, 아마 그를 울해에 (사제로) 서품하는 일

이 옳을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남쪽 지역에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북경으로 간 김 방지거가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만나서 저희들의 입국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페레올 주교의 편지 1843.2.20.)

조선대목구장 임명 소식을 듣고 놀란 페레올은 몽고 지역에서 최양업과 머물면서 조선 입국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양업의 학업 상태를 보고 사제서품을 주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한편 김대건과 함께 있었던 메스트르 신부는 편지에서 안드레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

“안드레아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려는 저의 미약한 노력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신부님께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체질이 튼튼해지고, 또 그간 중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던 신학 공부를 그가 이제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1843.3.1. 요동)라고 보고하고 있다.

육로로의 입국은 계속해서 좌절되었다. 조선의 밀사들이 큰 박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감히 조선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할 용기가 없었다. 1843년 말일에는 개주의 양관 성당에서 거행된 페레올 주교의 성성식에 두 신학생이 모두 참여하였다. 안드레아는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이듬해 2월 5일 썰매를 타고 출발하여 장춘에서 훈춘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동북로” 개척을 위한 탐험을 시작했다. 이 여행을 통해 쓰여진 것이 김대건의 9번째 서한문에 해당되는 “훈춘 기행문”이다. 이 편지는 부제 서품 직후인 1844년 12월 15일에 작성되었는데, 본래 한문으로 쓰여졌으며, 원문은 유실되고 프랑스어로만 전해지고 있다. 이 서한에는 동북쪽의 험한 길을 통해 조선에 들어가기 위한 여행 중에 겪었던 일화와 그 지역의 문화와 풍습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음력설(1844. 2.18)에 진주문(珍珠門)이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겪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그 지역에서는 음력설이 되면 무조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정에는 깨어서 귀신을 맞이해야 하는 풍습이 있었다. 김대건은 그때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설무렵이 되면 외교인들은 미신에 빠진다. 객줏집 사람들은 뜬눈으로 첫날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자정쯤에 제주(祭主)가 무엇인지 모를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제 자리인 ‘강(khang)’ 즉 온돌로 가까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 “일어나시오, 귀신들이 가까이 옵니다. 귀신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귀신이 가까이 온다니! 어디서 오는 거요? 무슨 귀신들이오”, “그렇소, 귀신들, 큰 귀신들이 와요. 일어나시오. 그들을 마중 나가야 합니다.”, “여보, 잠깐 기다려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잠 귀신에 접해 있소. 지금 오는 귀신 중에 나를 이만큼 기분 좋게 해줄 귀신이 또 있소? 제발 버 귀신과 조용히 즐기게 버버려 줘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을 나는 모르오.” ... 아마 그는 귀신들에 대한 저의 공경심에 별로 감화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제 여행의 전도가 불길할 것으로 예측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김대건(4) : 부제 서품 직전의 ‘훈춘 기행문’

출발한 지 한 달여 만에 훈춘까지 이르러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원개시(慶源開市) 장소까지 도착했다. 그러던 중 조선에서 붙잡혀 온 20세쯤 되는 젊은이를 만났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여기고 목을 자를 테니까요.” 하며 대답했다. 이렇게 김대건이 국경 사이에 깊은 증오가 놓여 있음을 보면서, 국경 너머 조선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저로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처가 없고 며칠 동안의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서 목인된 것은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저는 조국의 땅을 외국인의 자격으로 잠시만 밟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아아, 인류 대가족의 공동의 아버지인 성부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 그의 사랑 안에 모든 자녀를 품으실 날이 언제나 올까요?”

김대건은 주교님이 출발하기 전에 지시한대

로 여행 중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훈춘 기행기”에 요약해두었다. 생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유피타츠’(魚皮韃子) 종족을 소개하고, 비교적 비옥한 만주 땅에서 나는 옥수수, 조, 메밀, 밀 등을 수확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비옥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 지역이 황폐한 원인을 청제국이 들어설 때 만주족의 주요인물들을 이주시킴으로써 권력을 분산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주어가 점차 사라질 것이고, 백 년 후쯤에는 그 말이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정말 그렇게 만주어는 사라져 가고 있다.

경원개시가 열리자 김대건은 여행 일행과 함께 손에는 흰 수건을 들고 허리띠에는 붉은 색깔의 작은 차 주머니를 차고 군중 사이를 걸어다녔다. 그것이 조선 밀사들과 약속된 표시였다. 한참 동안을 기다리다가 한(韓)씨 성을 가진 조선 신자를 만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한씨는 육로를 통한 조선 입국은 어차피 국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비교적 거리가 짧은 변문쪽이 덜 위험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한씨는 헤어질 때 붉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했고,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편하게 만날 수도 없었다. 한씨와의 마지막 헤어짐을 김대건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우리가 훈춘으로 돌아가려 하였을 때 조선 교우들이 다시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작별할 결심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저의 동행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졸들이 우리를 장사 일이 아니라 다 른 일로 온 사람으로 의심할까 두려워 그에게 다시 말에 오르라는 신호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선교회의 수호천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선교회 순교자들의 기도에 우리를 의탁하며 두만강을 건너 달단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묵상

미래에 계획을 세울 때 수호성인에게 의탁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고 반성하고 있는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권고하며 가르치시오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티모테오가 받은 사목서간

에페소에 있는 티모테오에게 사도 바오로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티모테오는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티모테오는 내심 스승이 이곳 에페소를 떠나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스승 바오로는 계속 에페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페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일부 사람들에게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1티모 1,3)

티모테오에게 스승 바오로가 “훌륭한 영적인 전투를 해내라”(1티모 1,18)는 당부를 합니다. 사실 에페소의 공동체에서 하루하루 버티어 온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티모테오는 에페소에서 이단 등에 대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하느님의 계획에

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억측만 불러일으킵니다.”(1티모 1,14)

2. 에페소는 어떤 곳인가?

에페소는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도시로 과거에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요, 거대한 무역항이 발달한 항구도시였습니다. 오랜기간 황금기를 누리면서 많은 역사적 변환기에도 부를 축적했던 도시였습니다. 에페소의 시민들은 첫 번째 가치를 재물에 두었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돈에 굶주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에페소의 이런 분위기는 교회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이단자들이 설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그때의 티모테오의 마음은 분명히 복잡하고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가장 사랑하고 믿는 제자인 티모테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들과 같은

티모테오야, 너는 에페소의 혼잡한 상황에서 빠져 나오고 싶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나도 지금 당장 너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으니 부디 네가 혼자 잘 싸워야한다. 네가 무너지면 성스런 교회가 무너지져 버려 피해는 고스란히 착한 신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싸워다오. 내가 늘 너와 함께 영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마라.”

티모테오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티모테오는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참고 견딜 것을 다짐했습니다. 디모테오는 그의 정신적 아버지가 도와주어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

3. 사도 바오로와 티모테오의 만남

열심한 청년 티모테오는 어느 날 사도 바오로를 만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사도 16장 참조). 사도 바오로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마르코의 문제로 격하게 다투고 결별을 합니다(사도 15,36-41 참조). 사도 바오로는 한눈에 리스트라에서 만난 디모테오의 됴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티모테오도 스승 바오로의 뒤

를 따라 전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믿음 안에서 티모테오를 아들로 삼았을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 “나의 아들”, “나의 동업자이며 형제”라는 애칭을 즐겨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전교활동 현장에서도 티모테오는 신실하고도 은총 넘치는 사목활동을 했습니다. 티모테오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선교활동을 했기에 바오로 사도는 그가 나이가 어려 남에게 멸시를 당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티모테오를 믿고 전폭적으로 후원했고, 티모테오도 자신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여 충실한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4. 사목서간이란 무엇인가요?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흔히 사목서간이라 부릅니다. 사목서간은 말 그대로 사목자가 사목자에게 보내는 서간입니다. 요즘 교구장님이 교구에 있는 모든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비유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사목서간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두 개의 서간과 티토에게 보낸 서간등 3개입니다. 이 서간의 발신자는 사목 책임자이고 수신인은 사목자

입니다. 그 내용은 대략 교회의 직분, 교계제도와 교회조직 그리고 당시 교회에서도 기승을 부리던 이단에 대한 문제 등 신자들에게 사목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항상 교회를 흔들고 위험에 처하게 했던 요소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습니다.

5. 서간의 내용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의 1장과 2장은 주로 가장 먼저 거짓 설교(그릇된 가르침)와 디모테오의 책무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를 가르쳐서 신자들의 분열과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실명도 (히메내오스와 알렉산드로스) 언급합니다. 서간의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 봉사자의 자격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는 상식적이며 절제와 배려심과 온순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교리에 대한 지식도 높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인성도 좋아야 합니다. 교우가 아닌 이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1티모 3,1-7 참조). 이어 4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5장에는 과부와 원로 교우 및 신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자세하게 설

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봉사자들에 관한 기본지침, 이단과 탐욕에 대한 경고, 믿음을 위한 싸움, 부자들에게 관한 지침,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



한달 동안 성경읽기

| | | | |
|------------------------------|------------------------------|------------------------------|------------------------------|
| <input type="checkbox"/> 1주간 | <input type="checkbox"/> 2주간 | <input type="checkbox"/> 3주간 | <input type="checkbox"/> 4주간 |
| 1티모 1장 | 1티모 2장-3장 | 1티모 4장-5장 | 1티모 6장 |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바오로는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티모테오를 어디에 머물도록 했나? (1,3)
- ② 그릇된 교리가 가져오는 피해는 무엇인가? (1,4)
- ③ 건전한 가르침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요? (1,11)
- ④ 예언에 힘입어 ()를 수행하십시오. (1,18)
- ⑤ 바오로는 남자들에게 어떤 예배 자세를 가르치고 있나요? (2,8)
- ⑥ 여자들에게는 어떤 예배 자세를 지시하고 있나요? (2,9)
- ⑦ ()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4,8)
- ⑧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남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고합니까? (5,1)
- ⑨ () 좋은 평판을 받는 여자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 내고 ()를 후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온갖 ()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5,10)
- ⑩ 신자들을 섬기고 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6,2)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히든카드?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교회는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도움을 전해 줍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분이 병자성사를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받는 성사로 생각해서 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 역사 안에서 천여 년 동안 병자성사를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만 받을 수 있는 종부성사로 잘못 이해해온 이유도 있습니다. 흔히 병자성사와 종부(終傳)성사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같은 성사의 다른 두 가지 이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환자가 병중에 있을 때 한 번 받던 성사(종부성사)를 횡수와 관계없이 사제에게 청할 수 있는 병자성사로 규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사도들의 도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고통받는 병자들에게 특별한 동정심과 사랑을 가지셨습니다(마태 9,35-38; 마르 2,1-12).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군중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마태 9,35-38).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질병의 치료만이 아닌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 병자로 하여금 하느님 백성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치유와 해방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고,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도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마르 6,13)” 줍니다.

병자성사에서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서 시대에 기름, 특히 올리브 기름은 밀, 포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몸에 바르고, 먹고, 치료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손님의 머리에 바르거나(마태 26,7; 루카 7,46), 손님의 발에 발라 겸손한 복종과 존경의 표현을 했습니다(요한 12,3). 또 매장하기 전에 시신에 기름을 발라 방부제 역할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제단이나 물건의 축복예식에 기름을 사용했고, 제사장(탈출 28,40-42), 예언자(이사 61,1), 왕(1사무 10,1)에게 기름을 부어 일반인과 구분을 하는 축성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하면서 병자를 그리스도께 맡겨 성령의 은총을 받게 했습니다. 즉, 병자는 기름 자체의 효능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성령과 일치한 그분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병자성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병자성사를 받으려면 소속된 본당에 병자성사를 청하거나, 혹은 입원해있는 병원에 원목 사제가 있다면 원목 신부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를 받을 신자는 가능하면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할 수 없다면 병자성사 전에 신부님께 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를 청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병자성사 전에 병자가 머무는 곳을 깨끗이 정돈하고, 병자도 깨끗한 옷을 입고 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신부님들이 가져가시지만, 초와 성수, 십자가상이 있다면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병자가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라면 영성체를 위해 물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함께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자성사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병자성사는 병이 위중한 환자, 혹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거행되므로 병원이나 병자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당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미사 안에서 병자성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병자성사 또한 전례적 성격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적으로 거행되어야 하므로 가족이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해성사나 참회예식 이후에 성경 말씀을 읽는 말씀전례가 이어지고 이어서 사제는 침묵 중에 기도하며 병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축복한 병자성유를 이마와 두 손에 바르면서 기도를 바칩니다. 도유 후에 사제는 병자에게 성체를 영하게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간략하게 안수와 도유, 영성체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영성체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의 환자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의 은총은 무엇인가요?

병자성사의 은총으로 병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수난에 더욱 가까이 결합시키는 힘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이 고통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병자성사의 근본적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상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에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죽음 앞에서 번뇌와 좌절에 빠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게 병자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유들을 완결 짓습니다. 세례 때의 도유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고, 견진의 도유는 우리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병자성사의 마지막 도유는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 마지막 영적 싸움에 대비

하여, 우리의 마지막 지상 생활에 튼튼한 방패를 마련해 줍니다.

병자성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병자성사는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노환으로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사입니다. 성사를 받은 이후에 건강을 회복했다가 다시 병이 든 경우에도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도 이 성사로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철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교리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식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을 때 청했으리라고 추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기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미 병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종자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면 됩니다.

병자성사는 병자에게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할 운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느님은 병고와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비로운 손길로 인간을 보살펴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이끌어줍니다. 고통이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정화와 구원의 길임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는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에 결합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병자성사의 핵심이 병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어루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실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요셉

St. Joseph (축일: 3월 19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Patris corde)를 반포하시면서, 성 요셉의 해로 2021년을 지정하셨습니다. 이는 복자 비오 9세 교황님의 교령 『하느님께서 같은 방식으로』(Quemadmodum Deus)를 통해 성 요셉을 보편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신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1년 12월 8일까지 1년 동안 보편교회가 기념하는 것이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19로 영육 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든 남녀 교우들을 위한 영성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성인에 대하여 다시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 인간 (Homo Viator)”으로, 요셉 성인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성 교우들의 세례명 가운데 많은 이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요셉’일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도 다른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의 계보를 잇는 그런 구약의 요셉,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요셉에게 모두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우선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부터 기원합니다. 히브리어로 יוסף, Yosef, 뜻은 “하느님께서 더하신다 (늘리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Y(י)가 들어가는 단어들 가운데 일부는, 그것이

야훼 하느님을 지칭하는 성스러운 네 글자(Tetragram, 테트라그램이라고 지칭함) YHWH에 해당된다고 믿기 때문에, Y(י)로 시작되는 가운데 ‘야, 야훼’가 들어가면 그것은 하느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어로 넘어오면서, Ἰωσήφ (IOSEPH)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라틴어로 음역이 되어서 IOSEPH가 되고, 이것이 스페인어로는 JOSE (호세), 이탈리아어로는 GIUSEPPE (쥬세페), 프랑스어로는 JOSEPH (조셉)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와 동일하게, 영어는 JOSEPH이 됩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이다 보니, 자기 위의 형들로부터 천대를 받다가 이집트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해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고, 그 후에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간승리를 일군 요셉에게, 형들은 용서를 청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줍니다.

신약의 요셉도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파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결혼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충실하게 살다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과 성

모님이 보는 가운데 먼저 선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요셉 성인 신심이 교회 내에서 널리 퍼졌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 요셉 공경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9세기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에 들어서는 그 공경예식이 공식적인 전례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신심을 가장 크게 널리 퍼트린 사람은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양부이신 성 요셉을 손꼽았고,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 요셉을 꼽았습니다. 이후 가르멜회 수도회원들도 성 요셉 대축일을 자신들의 고유전례력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의 영적 지도를 받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영향 때문입니다. 1870년 12월 8일 복자 비오 9세 교황님께서서는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성 요셉을 선포하셨고, 성 요한 23세 교황님께서서는 로마 전례력에 성 요셉 대축일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우리가 성 요셉 대축일을 보편교회에서 전례적으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손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늘려주시고, 더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우선 ‘믿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진짜로 더해 주셨다’는 것을 직접 오감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을 걷는 이가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느님의 손길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



"성 요셉의 모범을 보면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인간적이고 누구나 아는 그런 덕목들을 진정 겸손하게 이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성 바오로 6세 교황 -

기도 학교

최고의 기도 '미사'

차동욱 시몬 신부_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영성지도

이번 달에 말씀드리는 기도학교의 내용은 최고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미사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미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의 구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크게 기도의 형태에 따라 '소리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 염경기도와 소리 없이 생각과 마음으로만 드리는 '묵상기도'로 구분됩니다. 소리기도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감정을 하느님께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염경(念經)기도'란 대부분 교회가 정한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거나 외어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묵상(默想)기도'는 침묵 속에서 이성과 감정, 때로는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누가, 언제 기도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개인기도'와 '전례기도'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개인 기도는 당연히 기도의 형태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바치는 개인 기도를 말합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모여 하는 공동의 기도라도 전례 기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개인기도에 포함됩니다. 전례 기도의 요건은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직자의 주관하에, 교황청에서 인준한 전례서에 따라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 및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가 전례 기도입니다. 성찬례(미사), 시간 전례(성무일도), 성사, 준성사의 축복 등이 이 전례 기도에 속하며 전례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과 전례 기도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때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모든 이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모든 이를 구원하고자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어떠한 기도라도 그리스도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지향을 따라가 모든 이를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전례 헌장 12항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례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고유한 개인적 모습을 잃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든 이를 위한 감사와 청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이 의미를 벗어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러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잘됨을 위한 청원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꼭 남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는 역시 ‘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 현장은 미사야말로 성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적인 성화와 하느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10항). **미사야말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미사는 성찬례이면서 성체 성사인데, 어떻게 기도에 속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대표적인 전례 기도이면서 모든 기도가 다 담겨 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사에는 기도의 모든 태도가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미사 안에서 ‘참회와 자비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대영광송’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말씀의 전례’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가르침을 깨닫고 힘을 얻습니다. ‘보편지향기도’를 통해 나와 공동체의 바램을 청원합니다. ‘봉헌’을 통해 나의 일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성찬의 전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총을 간직하며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의 인사’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강복과 파견’을 통해 미사 때 받은 모든 은총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미사는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외에 미사 안의 의미에서도 엄청난 기도들이 쏟아져 나오니다. ‘미사 지향’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미사는 산 이와 죽은 이 모두를 하느님 앞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 되는, 온 인류와의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이 미사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 즉 하느님과 우리,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가 만나 한데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다란 은총의 성사이며 최고의 기도인 미사가 지루한 마음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새 ‘공지 사항’ 시간이 다가와야 마음이 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미사 안의 의미들에 집중하며 순간순간 드리는 모든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미사의 은총을 충분히 받아 누리길 바래 봅니다.

미사가 왜 최고의 기도가 되는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를 ‘미사 성제’라고도 하는데, 미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聖祭)라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제각기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 근본은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직접 바칠 수 없기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로 당연히 자신보다 덜한 것을 선택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미사 안에서 우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시고 우리가 받는 축복을 가능케 해주신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보다 덜한 존재로 제물을 바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손수 자신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셔서 이보다 더 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큰 효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효과는 우리의 생명력 넘치는 일상의 삶이며 더 나아가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미사는 다른 어떤 기도 보다도 의미와 은총에서 앞선다

Cornerstone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도가 미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사 참례를 소중히 여깁시다. 한 주간의 중심을 미사 참례로 정하고, 미사 때 받는 은총을 통해서 주간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더불어 주일 역시 우리 삶의 근본이며 중심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사실 당신의 심으로 심의 날이라는 새날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특별히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축복을 내리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새로이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날을 부활의 날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곧 인간의 삶의 창조와 구원의 창조를 이루신 것이지요.

이 소중하고 거룩한 주일에 최고의 기도인 미사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겠다고 다짐하며 미사를 참례합시다. 미사를 통해서 받는 은총을 믿고 지내시다가 다시 주중 후반쯤 가서 힘이 떨어지면 내가 미사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은총이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주일 미사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미사를 통해 힘을 연습니다. 아, 물론 평일 미사에도 같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주 평일 미사도 참례합시다. 이렇게 미사에 대한 믿음과 행동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사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



교황 (Pope) 추기경 (Cardinal) 주교 (Bishop) 전속사제 (Monsignor) 사제/부제 (Priest/Deacon)

수단(라틴어: Talaria, 프랑스어: Soutane, 영어: Cassock)

가톨릭 성직자들이 평상시에 입는 공통된 제복으로, 목 부분에 로만 칼라에 앞이 트인 옷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다. 전례 행사 때에는 속옷 역할을 하며, 가톨릭 국가에서는 성직자들의 실내복이자 외출복으로 입는 평상복이기도 하다. 수단은 성직자의 지위에 따라 그 색상이 다른데, 사제는 검정색을, 추기경은 진홍색을, 교황은 항상 흰옷을 입는다. 수단의 장식띠인 파시아(Fascia)의 색상도 이 규칙을 따른다. 로마식 수단에는 종종 앞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연수를 상징하는 서른 세 개의 단추를 달기도 한다.

교황이 하얀색 수단을 입는 이유는 옛날부터 하얀색이 신성함을 상징하는 고귀한 색이었고 대체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특성에서 연유한다. 또한 하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기쁨과 영광과 새로 태어남, 순결 등의 의미도 있다.

수단(Soutane)이란 말은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라틴어: Vestis Talaris, Habitus Talaris)이란 뜻의 라틴어 '수브타나'(subtana)에서 유래한 이탈리아어 '소타나'(sottana)에서 파생한 프랑스어 '수탄'(soutane)에서 유래하였다.

역사적으로 수단(Soutane)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토가(Toga) 밑에 입었던 가운 같은 옷인 튜닉(Tunic)에서 유래한 것이다. 3세기까지만 해도 성직자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고정된 복장은 없었다. 4세기경에 이르러 성 아타나시오는 성직자 자신의 성직 수행을 위해 특수한 복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6세기에 로마인들의 복장을 따라 팔리움(Pallium)이라고 하는 간단한 두루마기식의 외투를 입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옷은 로마의 법관이나 의사도 입었는데, 성직자도 영혼의 의사이며 사죄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점에서 입게 된 듯하다. 색상이 검은 이유는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세속에서 죽었다는 의미이며,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1546-1563년)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다.

- 지마라(Zimarra): 주교 이상의 고위 성직자들이 수단 대신 입는 복장으로 권위의 상징이었다.
- 펠레그리나(Pellegrina): 지마라 평상복 수단에 부착되는 어깨망토로 앞부분이 트여있고 여밀 수 없다. 이 망토는 주교의 권위, 즉 관할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교 혹은 수도원장과 같은 고위 성직자들이 부착하고, 본당 사목구 주민신부들도 착용 가능하다.
- 주케토(Zucchetto): 바가지 모자인 주케토는 이탈리아어로 '작은 바가지'라는 뜻이며, 8개의 조각을 이어 만든 모자이다. 수단을 입을 때 성직자가 항상 머리에 쓰고 있어야 하며, 머리에 비레타(Biretta), 교황관 등을 쓸 때도 기본적으로는 주케토를 이미 착용한 상태에서 그 위에 덮어서 쓰는 것이다. 중세 시절에 성직자들은 정수리부분을 삭발했는데, 주케토는 본래 그 부분을 덮기 위한 모자였다.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6

코로나 백신과 악에 대한 협력 문제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오늘은 보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한 분들이 바이러스의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된 채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입니다. 질병의 피해를 직접 겪게 되시는 분들 외에도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백신이 하루 빨리 보급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윤리적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 사안은 아마도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의약품이 효과보다 위험이 더 크다면, 그 약품의 사용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20여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

니다. 물론, 사망의 분명한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정말로 위험성이 큰 백신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윤리적 문제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사용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낙태된 태아로부터 얻어낸 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낙태된 태아로부터 유래된 세포를 사용해서 만든 치료제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사이언스(Science)¹ 라는 과학잡지에는 당시 개발되고 있던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적어도 5개가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주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된 세포주

세포주(cell-line)라는 것은 생명체로부터 추출해 낸 세포를 배양해서 증식시킨 것을 말하는데, 의생명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별히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된 세포주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HEK-293과 PER.C6 라는 이름의 세포주입니다. HEK-293 세포는 1972년 혹은 1973년 네덜란

¹ M. Wadman, "Abortion opponents protest COVID-19 vaccines' use of fetal cells", Science, 2020.6.5., <https://www.sciencemag.org/news/2020/06/abortion-opponents-protest-covid-19-vaccines-use-fetal-cells>

드에서 낙태된 태아의 신장 세포를 추출해서 증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추출한 세포를 끊임없이 증식시켜서 현재 많은 세포 생물학 및 생화학 과학자들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PER.C6 세포주는 보다 최근인 1985년에 낙태된 태아의 망막 세포를 추출해서 증식시킨 세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세포주를 사용해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은 지금 낙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낙태의 결과물을 이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윤리성

사실 우리는 이미 낙태가 태아를 살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낙태에서 얻어진 결과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명 이 세포주를 사용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포주를 사용한 백신 개발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물건을 훔친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물건의 구입과 사용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별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HEK-293 세포주의 사용 범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한 백신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교황청은 2008년 「인간의 존엄」이라는 문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

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부당한 유래의 인간 ‘생물 자원’ 사용”이 “악에 대한 협력과 추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즉, 낙태된 태아로부터 유래된 세포주를 백신 연구에 사용하는 것이 낙태에 대한 “어떤 관용이나 암묵적 수용”의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헌은 이러한 상황에서 “악에 대한 협력과 추문”을 피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직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부당한 생물 자원을 거부할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개발된 백신을 접종하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인간의 존엄」은 이러한 상황 안에서 “차별화된 책임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즉, 낙태를 한 사람과 낙태된 태아에서 얻어진 세포를 사용해서 백신을 생산한 사람, 그리고 그 백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책임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그러한 책임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교황청이 이와 같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야기 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시대에도 선교는 진행형!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수년간 본당에서 교리교사로 봉사해온 소화 데레사는 선교에 대한 소명감이 남다르다. 젊은 시절에 해외 선교사로 파견 되고픈 꿈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코로나19로 교회 활동이 제한되어 예비자 교리반도 개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다 보니 교리 봉사자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같은 구역에 거주하는 몇몇 이웃들을 입교 시키려고 그들과 꾸준히 인간적 유대감을 쌓아 왔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선교의 한계를 절감하던 중,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대면 선교요령’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1. 예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인터넷 교리를 수강토록 권유한다.
2. 예비자들에게 미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평화방송 주일미사 링크를 공유한다.
3. 대부모들은 냉담중이거나 믿음이 부족한 대자녀들과 화상통화를 통하여 영적대화를 한다.
4.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여준다. (묵주기도 5단)



Question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환경 속에서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마태오 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선교를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명령으로 여겨 본 적이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교회의 ‘선교의 소명’이 정당화됩니다. 병에 걸린 누군가를 치료해줄 유일한 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자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치료제의 효과를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를 지닌 교회도 그 지닌 진리의 보편성을 믿는다면 “선교하는 교회”(850)일 수밖에 없고 “선교적”(851)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850-851항』

“교회 안에 선교의 ‘봄’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의 선교활동은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는 여전히 이질적인 인간, 문화, 종교 상황들의 가장 변방에 가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민선교(missio ad gentes)’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선교의 핵심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당신 숨결을 불어 넣으시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례 받고 파견된 모든 이가 새로운 선교의 ‘봄’을 맞이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의 2020년 10월 기도지향』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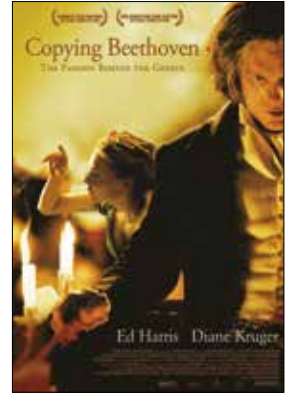
고전 음악을 듣다

베토벤의 이해(3) - 병에서 회복된 자가 하느님께 바치는 감사의 노래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5번 a단조 Op.132 제3악장은 말기 베토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준다. 베토벤은 1825년 봄에 심한 복통으로 앓아누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해 여름에 가까스로 회복하였다. 베토벤은 가까스로 회복한 후에 이미 작곡된 4악장 길이의 현악사중주 15번에 제3악장을 끼워넣고 특이하게 스스로 긴 제목을 붙였다: “Heiliger Dankgesang eines Genesenen an die Gottheit, in der Lydischen Tonart” 번역하자면 “어느 병에서 회복된 자의 하느님에 대한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 이고, 숨표 뒤에는 “리디아 선법에 의하여(in der Lydischen Tonart)”라고 붙였다.

기악곡에 왜 ‘감사의 노래(Dankgesang)’라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영화의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2006년 개봉한 ‘카핑 베토벤(Copying Beethoven)’은 마지막 교향곡 9번의 초연을 앞두고 베토벤의 악보를



Copying Beethoven (2006)

1h 44min / Biographic, Drama, Music / Director: Agnieszka Holland
Writer: Stephen J. Rivele, Christopher Wilkinson
Stars: Ed Harris, Diane Kruger, Matthew Goode

연주용으로 카피하는 여성 카피스트 안나 홀츠와 베토벤 사이의 영혼의 교감을 그린 영화이다. 원래 주된 줄거리는 9번 교향곡의 초연까지의 과정이지만, 영화 중간에 아직도 병상에 누운 채(실제로는 장염) 점차 회복되어가는 베토벤이 안나 홀츠에게 현악사중주 15번의 제3악장의 기보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비교적 짧은 장면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을 붙이고자 한다.

첫 대화 “어떤 키로 시작할까요?” “노 키!” 작품의 조성이 a단조이지만, 이 악장만큼은 중세교회의 리디아선법을 사용하였다. 리디아선법은 F에서 시작하여 F로 끝나는데, 중간에 어떠한 플랫(b)이나 샵(#)을 사용하지 않는다(쉽게 말하자면, 피아노의 흰 건반 파에서 시작하여 파까지 검은 건반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F장조와는 ‘내추럴 B’에서 차이(B플랫을 쓰지 않음!)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장조보다 더 밝은 ‘수퍼-장조’로서 예부터 ‘황홀경’을 표현하여 왔다.

이어서 베토벤은 지시하기 시작한다. “4박자로 몰토 아다지오(Molto Ada-



Ludwig van Beethoven: The 'Late' Quartets Opp.127, 130, 131, 132, 135 & 133 Grosse Fugue
Tokyo String Quartet
3 SACD /HMU807481.83 /Also available for download
Recorded 2010 © 2010
Total time : 3h 18mn 25s



Beethoven: 29 Sonatas (op. 2 Nos. 2 & 3 · op. 7 · op. 10 · op. 13 op. 14 No. 2 · op. 22 · op. 26 · op. 27 · op. 28 · op. 31 · op. 49 · op. 53 · op. 57 · op. 79 · op. 81a · op. 90 · op. 101 · op. 106 · op. 109 · op. 110 · WoO 47 Nos. 1 & 2) / 15 Variationen op.35 <Eroica Variations>

Emil Gilels
Release Date: October 1, 1996
Duration: 10:55:09 (9CDs)
Label: Deutsche Grammophon (DG)
UPC: 0002894532124

gio), 소토 보체(Sotto Voce), 제1바이올린, 4분음표. 중음 C에서 F까지. G에서 C, F와 묶고. 제2바이올린, 온음표로 중음 C에서 A까지. E, G, C” 이어서 비올라, 첼로에게도 기보를 지시한다. 여기서 ‘소토 보체’를 직역하면 ‘낮은 목소리로’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연주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추어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대화 중에 진지하게 들으라는 의미로 “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시작부터 진지하다 못해 심각하다. 카피스트는 베토벤의 지시대로 첼로까지 기보하더니 금세 얼굴을 들고 “찬송가네요!”라고 되묻고, 베토벤은 병에서 회복시켜준 하느님을 언급하고는 “그래, 감사의 찬송가야”라고 대답한다. 카피스트는 너무 긴 호흡의 4분음표와 2분음표로 시작하기에 뒤늦게야 찬송가라고 알아차렸다. 찬송가 하면 보통 성악을 떠올리지만, 이를 들어보면 기악의 찬송가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토벤은 피아니시모 다음에 ‘캐논(canon)’을 지시한다. 다성음악적 구조에서 우리는 마치 바흐의 어느 코랄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원래 지난 호에서 설명하였듯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플랑드르에서 본으로 이주하였는데, 베토벤이 유학한 빈까지 함께 모든 지역이 합스부르크왕가의 영향력 하에 있어, 베토벤은 카톨릭으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어렸을 때의 스승 네페가 루터교(개신교)의 음악 바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베토벤은 좀처럼 바흐의 음악에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베토벤은 이전에도 이미 그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Ab장조 Op.110 제3악장에서도 바흐의 요한수난곡(Johannes-Passion) BWV.



BÉLA BARTÓK: The Piano Concertos
Zimerman · Andsnes · Grimaud
Chicago Symphony Orchestra · Berliner
Philharmoniker · London Symphony Orchestra
Pierre Boulez

Duration: 01:16:23
Release Date: February 1, 2005
Label: Deutsche Grammophon (DG)
UPC: 00028947753308

245 2부의 30번 알토 아리아 “Es is vollbracht(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를 차용하여 ‘아리오소 돌렌테(arioso dolente)(고난의 작은 노래)’의 악상기호를 붙였었다. 이제 베토벤은 캐논의 형태로 점차로 크레센도로 향하는 기보를 지시하는데, “이제 고난이야.”라고 설명하면서 “첼로는 2분음표로 F, E, D 일정하게 내려! 그 다음은 목소리아, 희미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서 소리를 박차고 오르지. 이제 제1바이올린이 신께 애원하고, 그리고 신께서 대답하셔. 구름이 열리지, 사랑의 손이 아래로 내려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올려. 첼로는 땅에 남고 나머지는 날아오르지. 잠시 동안,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거야. 땅은 존재하지도 않아, 시간은 사라져버리지.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야”라고 설명한다. 카피스트는 침상에 누워있는 베토벤의 얼굴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래요!”라고 대답한다. 후대의 예술가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시인 T.S. 엘리엇(Eliot)은 1933년 이 악장을 듣고 모든 시와 예술을 넘어서는 경지에 있다고 하였다. 벨라 바르톡도 1945년 백혈병으로 죽기 직전의 마지막 피아노협주곡 3번 E장조 Sz.119(BB. 127)의 제2악장 Adagio religioso(종교적인 아다지오)의 현악으로 시작하는 오프닝에 그대로 인용하였고, 쇤베르크도 이 찬송가 악장의 큰 영향을 받아 1946년 현악트리오 Op.45를 작곡하였다. 영화는 첫 시작 부분 한 장면만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악장 전체를 살펴보자. 설사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인하여 조금 이해가 안되더라도, 전체의 구조를 알고 들어보면 마치 베토벤의 내밀한 고백과도 같은 이 송고

한 음악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다.

제3악장은 연주에 15분 이상 걸리는 긴 악장이지만, 의외로 구조는 5부분(A-B-A-B-A)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다: ‘찬송가(A)’-‘새로운 힘(B)’-‘찬송가(A)’-‘새로운 힘(B)’-‘찬송가(A)’. A와 B사이를 넘나들 때, 베토벤답지 않게 다소 복잡한 경과구 없이 그대로 넘어가므로 오히려 듣기 쉽다. A(찬송가)는 8개의 음표를 단위로 ‘전주곡(4분음표 8개)-찬송(2분음표 8개)’의 형태로 모두 5번 노래하여 마치 바흐 칸타타의 코랄과 같은 느낌을 준다. 선율 성부의 찬송가 선율은 F리디아선법(F-C-G-D-A-E-B)으로 구성되었지만, 다른 성부에서 간간히 D장조(F#, C#, G#, D#, A#)로 전환되어 묘미를 더해준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리디아선법과 D장조를 섞어 모두 12개의 음높이만 가지고 찬송가를 구성하였다. ‘B(새로운 힘)’는 D장조로 기쁨에 넘친 2중악절(double period)의 춤곡 형태로 반복된다. ‘A(찬송가)’는 찬송가라고 하기에는 이례적으로 아주 느리다(‘물토 아다지오’). 시끄럽게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찬송가가 아니다. 필자만의 편견인지 모르지만, 요즘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드럼까지 등장시키는 정체불명의 찬송가와와는 정반대에 있다. 중세교회의 단순한 리디아선법으로 밝으면서도 ‘간절한 마음(소토 보체)’으로 하느님께 구원을 청한다. 이렇게 ‘소토 보체’로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수의 현악사중주단은 크레센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부러 현의 비브라토(vibrato: 지판을 짚은 손을 문질러 현의 떨림을 크게하여 깊은 소리를 내게 하는 기법)를 사용하지 않고 투명한 소리를 내는 연주를 한다. 간절한 찬송 끝에 얻은 ‘B(새로운 힘)’ 부분은 베토벤 스스로 ‘Neue Kräfte fühlend(새로운 힘을 느끼며)’라는 악상기호를 붙인 D장조이다. 점음표가 많아 마치 춤곡을 연상시킨다. 다시 찬송가, 다시 새로운 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찬송가에 다다른다. 찬송가 중 유일하게 ‘Mit Innigster Empfindung(가장 깊은 내적 감성으로)’라는 악상기호를 붙였다. 전주곡-찬송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푸가를 염두에 둔 듯 보다 더 단순한 전주에 이어 이중 푸가의

찬송이 등장한다. 베토벤의 푸가는 지금 들어도 마치 현대음악같이 들린다. 당대에는 오죽하였겠는가? 작품 ‘대푸가(Grosse Fuge Op. 133)’는 원래 현악사중주 13번 Op. 130의 마지막 악장이었지만, 아우성치는 비난에 결국 빼내어 독립된 작품으로 남았을 정도였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푸가는 숭고한 베토벤 음악의 절정에 있다. 푸가의 찬송은 제2바이올린이 A주제, 제1바이올린이 B주제를 각각 이중 푸가로 전개하면 나머지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가 각각의 주제에 응답을 하면서 진행된다. 제1바이올린과 첼로가 마지막 3번째 응답을 하고 나면 이제 푸가는 폴리고 d단조로 마무리된다. 드디어 마지막 찬송(5번째)을 향한 전주곡이 시작되고 마지막 찬송에서는 주선율을 가장 낮은 첼로가 담당하고 윗 성부들은 대위법적 ‘데스칸트(descant, 정선율에 맞추어 올리는 선율)’가 될 뿐이다. 그윽한 저음의 첼로가 부르는 F리디아선법의 마지막 찬송! 첼로의 그윽함은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 화염 속에 어머니를 뉘두고 탈주하는 오페라 안드레 웨니에의 여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 “La Mama Morta(어머니는 돌아가시고)”에 깔리는 그윽한 저음의 첼로가 생각나고, 필자는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원래 8개 음표의 찬송가 선율이 5개 음표, 3개 음표, 1개 음표로 쪼개지다가 마지막에는 4개의 현악성부 모두 2분음표에서 만나는 ‘sforzandi(그 부분만 특히 강하게)’의 클라이맥스에 오른다. 리디아선법의 황홀경이라고 할까?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작곡가 베토벤의 내면에서 가장 큰 고통이 극한의 강도(스포르찬도)로 메아리친다. 에머슨 현악사중주단처럼 마치 우리 자동차의 자동변속기를 “P에서 D로 넣었을 때의 기법(park and go)”으로 연주를 해주면, 궁극적인 깊은 내면에 깊이 침잠하다가도 마음 속 웅여리를 터뜨리고 심지어 부르르 전율하기까지 한다. 속이 확 뚫린다. 이윽고 절정을 넘어서 서서히 풀리면서 종지(코다)로 접어드는데, 베토벤은 F리디아의 긴 선율을 화성으로 바꿔놓아 - 화성만이 줄 수 있는 - 완전히 끝난 느낌을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하늘에 올랐어도 다시 땅에 내려와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갈릴래아 호수 - 잔잔한 파도 소리에 마음이 열린다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나자렛을 떠나 갈릴래아 호수로 이동합니다. 갈릴래아 호수는 나자렛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면 약 30분 남짓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직행버스는 없고 두 번 정도 갈아타면 갈릴래아 호변 마을 중의 시내라고 볼 수 있는 티베리아스까지 한 시간 조금 넘게 소요됩니다. Jesus trail 혹은 Gospel trail이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도보로 나자렛에서 갈릴래아 호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통 10여 킬로씩 3일에 나누어서 걷는 여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잘 닦여진 길이 아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갈릴래아 지역은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혼자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력범죄에 노출이 되어있기보다는 사람이 너무 적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안내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순례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60~65세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 일터에 몸담으셨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다행이에요.” 하고 대답하면 얼굴에 미소가 잔잔히 번지시며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곳이 갈릴래아 호숫가였습니다. 사시사철 언제 가도 좋은 곳이 갈릴래아 호수입니다. 더우면 더운대로, 추우면 추운대로 언제나 감동적인 그곳. 이스라엘 순례 중에 대부분의 순례자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갈릴래아 호수가 주는 울림은 사람의 짧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부터 시작되어 홍해를 지나 시리아까지 이어져 있는 대협곡이

이스라엘 동쪽을 지나가는데 갈릴래아 호수는 이곳에 있는 커다란 물웅덩이입니다. 이 계곡은 해수면보다 낮게 패여 있는데 가장 아래쪽의 큰 구덩이가 사해이고, 그 위에 있는 구덩이가 갈릴래아 호수입니다. 이 사이에 흐르는 강이 하부 요르단 강이지요. 상부 요르단 강은 갈릴래아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의 샘에서 발원하여 호수로 흘러들어옵니다.

해저 -215m인 갈릴래아 호수에는 주변의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공기가 내려와 따뜻하고 습하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건기(4월~9월) 동안의 호수 주변은 열대지방과 다름없는 더위를 뽐냅니다. 그래서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잘 열리고 망고 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잘 열리죠. 이때 오시면 맛있는 이스라엘 여름 과일을 마음껏 드실 수 있지만, 순례 중에 성당에 도착하여 에어컨 버스에서 내리고자 하면 아무도 내리려 하지 않으시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만나기도 합니다. 뜨거운 이스라엘의 햇볕을 피해 올리브나무







가지 그늘에서 땀을 닦으며 한숨 돌리다 보면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에는 갈릴래아 호수에 파도가 철썩철썩칩니다. 낮에 땀으로 적셔진 옷을 벗고 호수로 뛰어들어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수영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기도 하지요. 봄에는 들판이 야생화로 뒤덮입니다. 빨간 양귀비와 아네모네가 먼저 피고 그다음에 노란 겨자꽃들이 피어오르는데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마태 6,28-29), 시간을 초월하여 제 귀에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야생화 사진을 찍느라 순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갈릴래아 호수의 전체 둘레는 55km이고, 차로 한 바퀴 돌면 60km입니다. 호수 동편에는 골란고원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하부 요르단 강이 흘러 내려가며 북쪽에는 상부 요르단 강이 흘러 들어오고, 서쪽에는 ‘티베리아스’라는 중심도시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서에 티베리아스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과 관련된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냥 물이 많이 있는 곳을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해서 “바다”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지요. 영어로도 갈릴래아 호수를 Lake Galilee 라고 하기보다는 Sea of Galilee 라고 더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곳 갈릴래아 호수 주변 마을을 무대로 복음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적을 보여 주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기념 성당들이 갈릴래아 호수의 북서쪽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참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곳과 빵과 물고기를 많이 하신 기적을 기념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마

을”이라고 별칭이 붙은 가파르나움,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향인 미그달까지, 다 갈릴래아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도보로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까지 가는 교통편은 좋지 않습니다. 티베리아스에서 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차를 빌려 다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티베리아스에서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를 빌려서 호수 한 바퀴를 돌아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서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다. 도보로는 하루 동안 완주하기 어렵고, 반 바퀴씩 잡고 이틀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숙소는 대부분이 티베리아스 시내에 있습니다. 값싼 호스텔부터 값비싼 호텔까지 많은 숙소들 중에 경비와 시설을 감안하여 고르시면 됩니다.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성지 근처에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순례자 숙소가 있습니다. 참 행복 선언 성당 순례자 숙소는 프란치스칸 수녀회에서, 빵과 물고기를 많이 하신 기적을 기념하는 성당(오병이어 성당) 순례자 숙소는 베네딕도 수도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고향인 미그달 순례자 숙소는 그리스도의 군대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세 곳을 추천합니다. 성지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숙소들은 낮과는 다르게 북적이는 순례자들이 없는 아침, 저녁 그곳에서 조용히 머무르며 묵상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지요. 한군데 더 추천을 하자면 호수 동편에 있는 엔게브 키부츠에서 운영하는 작은 리조트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이 숙소는 갈릴래아 호수의 노을을 볼 수 있다는 점과 호수를 전용 풀장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호숫가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찰싹이는 파도 소리를 듣거나, 아침 식사 전에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며 묵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순례 중에 갈릴래아 호수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배를 타는 체험을 진행하는데, 이것

은 단체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숙소에서는 티베리아스까지 가는 배편 티켓을 팔거나 고대 방식으로 물고기 잡는 쇼를 진행하기도 해서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았다는 민물고기, 이른바 성 베드로 물고기를 점심 식사로 드시는데 붕어나 도미 누구는 향어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음식을 잘하는 집이 있는 것처럼 맛있게 요리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튀겨서 내 오는데 숯불에 구워달라고 해보세요. 그 요리방법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시대와 가장 비슷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광야이고 다른 한군데는 갈릴래아 호수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곳! 파란 보리와 밀이 넘실대고 빨강고 노란 야생화가 피어오르는 그곳을 봄에 다시 머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과 일상의 철학

최대환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1. 제인 오스틴 문학의 평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세계 문학사에서 도입부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흔히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를 꼽고는 합니다. ‘모든 부부들은 같은 이유로 행복하고,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라고 하는 첫 문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언뜻 들으면 별 말 아닌 것 같지만 음미할수록 당시 사람들의 살아가는 실상을 반영하면서도 삶의 편견과 선입관, 사회적 통념들, 곁에서 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삶의 본질 등을 다루고 있는 이 대작이 전개되어갈 방향을 은근히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만큼이나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역시, 그 첫 시작이 유명하고 훌륭합니다.

“부유한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이다. 그런 남자가 새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 주위의 집안들은 이런 진리를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는 나머지 그가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그를 자기 집의 딸들 중 누군가가 차지하게 될 재산으로 여기곤 한다.” (『오만과 편견』, 고정아 옮김, 시공사, 2016)

재치와 풍자가 있으면서도, 당시 시대상을 눈에 그려볼 수 있게 잘 담고 있는 시작입니다. 한편으로는 ‘진리’ 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단단한



Pride and Prejudice (1995)
5h 27min / Drama, Romance /
TV Mini-Series(1995)

벽과도 같은 시대적, 사회적 관습과 구조가 짧은 첫 번째 문장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작품을 이른바 ‘치 릿 Chic lit’이라 불리는 현대의 도시적 로맨스 소설의 시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화, 드라마에서 『오만과 편견』의 변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에게도 역시 살짝 냉소적이면서도 따뜻한, 공감, 연민을 지니고 있는 풍속의 관찰자라는 이미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아주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과 같은 제인 오스틴에 대한 높은 인기와 관심의 이유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인 오스틴을 풍속작가나 대중적 연애소설 작가의 틀에서 보는 것은 그녀 작품의 진가를 가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인 오스틴이 살아있을 때 얻었던 약간의 인정과 인기는 재치와 격조를 겸비한 ‘여성작가’라는 선입관 속에 갇혀있었고, 사후 그녀의 작품들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고 명성이 널리 퍼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한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셰익스피어나 디킨스와 함께 언급되는 진정한 영국 문학의

대가의 반열에 오르고 그녀의 작품, 특히 『오만과 편견』이 세계문학의 ‘경전’으로 꼽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설이 문학적 방식으로 진실을 그려내며 피상적이 아니라 깊고 설득력 있게 윤리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잘 깨닫게 된 것이지요.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가장 큰 미덕이 인생의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면서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미학적 전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오만과 편견』은 그 탁월한 예가 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그러한 미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문학은 ‘일상의 철학’을 표어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실재’로서 성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일상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일상의 철학’은 우리의 일상과 현실 안에서 철학적 통찰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작은 사회적 현실과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환상이나 오해 없이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소설의 시작에서 말한 ‘진리’는 고답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사변적인 지식과 진리명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선부른 가치판단이나 이상화, 당위성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내고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특히 제인 오스틴은 당시 사회의 부당한 관습과 법률, 사람들과 사교계의 속물성을 분노나 경멸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 자신이 문학가로서의 인정이나 경제적 독립 등 당시의 영국사회에서 독신 여성으로서 어려웠던 과제를 위해 조용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추구하였던 체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Stourhead
Stourton, 스테틴 워민스터 BA12 6QF 영국

1775년에 태어나서 1817년 겨우 마흔 둘의 나이로 영면할 때까지, 그녀의 삶에서 문학은 그저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삶의 과제였고, 직업작가로서 독립적 지위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책을 출판하는데 있어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 애썼다는 것은 사소한 일화가 아니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시대에 그녀가 작가로서 홀로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며, 동시에 그녀가 이를 포기하지 않을 강한 의지와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소설에서 여자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적절한 신랑감을 찾는 데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상황이 사건의 동인이 되는 것은 배경으로서 만이 아니라 사회의 진실을 전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관계를 ‘신데렐라 이야기’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제인

오스틴이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사회적·작가적 독립성 등 당시 사회로서는 양립하기 힘들었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고민에서 찾고 있고, 이러한 고민은 작품 속에 다양한 방식의 관찰과 묘사, 그리고 성찰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학이 ‘일상의 철학’을 담고 있기 위한 첫걸음은 이처럼 사회적·개인적 진실에 대한 추구와 묘사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또한 인간의 성숙과 배움을 설득력 있게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제인 오스틴에게 있어서는 주로 등장인물의 성격과 성품에 대한 예리하면서도 애정을 잃지 않은 묘사를 통해 드러냅니다. 인간의 약점과 부족함, 속물성과 자기중심주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도 그들을 악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성격과 사회적 관습, 잘못 형성된 품성의 귀결로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소설에서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가 베넷과 빙리가의 여러 등장 인물들의 부끄럽고 어리석은 태도와 행위에 대한 신랄한 묘사들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인간이 잘 변하지 않고,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또한 그들의 그런 모습 역시 우리 삶의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지혜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몇몇 정말로 선하고 착한 인물들을 통해서서는 사람이 타고난 미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 그런 좋은 천성이 얼마나 쉽게 악의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지 씩씩한 인생의 실상을 말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의 철학’은 점점 성장하는 주인공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라는 두 주인공이 자신들의 내적 덕목을 교정하고 성숙시키며, 둘 사이의 관계에서 오해



《Pride and Prejudice》

5h 27min / Drama, Romance / TV Mini-Series(1995)

와 선입관을 넘어 수평적이면서도 깊이 사랑하고 상호 존경하는 관계를 상승하고, 또한 현실적 어려움과 과제들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덕의 윤리학’의 매우 깊이있는 문학적 구현이고, 단순히 풍속 소설이나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일상의 철학’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시킨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티나씨의 티비보기

가톨릭 유튜브, 재미와 의미 사이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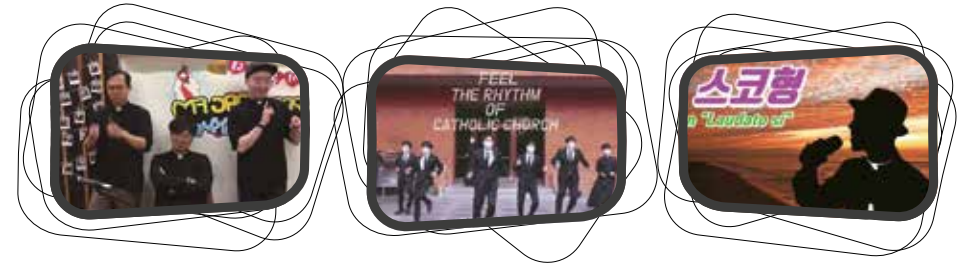
내가 몸담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유튜브 채널을 연 해는 2011년이었다. 초기 영상들은 형식도 어설프고 취지도 불분명했다. 행사 영상 스케치, 124위 순교자 시복 추진과 같은 중요 사업에 대한 주교님들의 해설, '도찰'에 가까운 주교회의 총회 현장 스케치도 있었다.

마땅한 기획이 없으면 행사나 인터뷰를 따라다녔다. 신문사들이 기획기사의 파생 콘텐츠 개념으로 영상 제작에 착수하던 시절이라, 한동안은 <경향잡지>의 인터뷰에 홍보팀이 동행해 영상을 찍어 왔다. 2014년 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을 앞두고 장익 주교님께서 역사상 첫 교황 방한 준비를 회고하신 인터뷰는 그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 더 귀한 기록이었다. 그해 8월 14일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날은, 상부의 이례적인 지시로, 캠코더 6대를 빌려 주요 지점에 고정시켜 놓고 CCTV 편집본 형태의 영상을 제작했다. 첫 5년간은 영상을 먼저 만들자는 의뢰나 제안이 없었지만, 마이크도 조명도 없이 저가형 캠코더와 삼각대만 들고 다니던 일개 직

원의 촬영 청탁을 주교님들이 선뜻 받아주시는 것은 늘 감사하다.

2020년대가 가까워지면서 커져 가던 유튜브 열기는 대면 소통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시대를 만나 강력하고 절박한 대안적 소통으로 자리잡았다. 2020년에는 주교회의 안에서도 영상 제작 의뢰가 많아져 카메라들이 분주했고,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의 '가톨릭 영상 교리' 시리즈를 비롯한 외주제작 영상들도 호응이 컸다. 전국에 '주교님 미사'와 서품식 중계가 이어지면서 상당수의 교구 홍보국들이 방송국에 버금가는 기술 환경과 역량을 갖추게 된 것도 실무자들에게는 괴롭지만 값진 소득이다.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가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평정하면서 일어난 변화 중 괄목할 것은 콘텐츠의 지리적 장벽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영어판으로 올린 천주교 소개 영상에 전 세계 신자들이 댓글을 남기고, 한국 신자들도 타교구와 해외교포 교회의 영상을 보며 세상 곳곳의 형제자매들과 교감한다.



유튜브의 보편화가 초래한 변화는 점점 커져 가는 재미의 중요성이다. 시선이 분산되기 쉬운 작은 화면에서 재미없음은 '나가기'로 직결되거나, 카메라 앞에서 언행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역동적, 유희적인 자기표현 행위인 까닭이다. 많은 사목자들이 복음화를 위해 전례와 교리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같은 직분인 다른 사목자들은 일견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브이로그'를 찍고, '아무 노래 챌린지'에 나서고, '테스형'을 패러디한 '(프란치)스코형' 뮤직비디오를 찍고, '범 내려온다'에 착안한 '양 내려온다' 퍼포먼스를 한다. 모든 유튜브 콘텐츠가 재미있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최소한 지루해서는 안 된다. 이 매정한 원리는 온라인 미사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속이나 직분을 막론하고 화면 속 사제의 강론이 길어지거나 내용 전개가 명쾌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신자들의 마음속 평가는 냉정해진다. 유튜브를 통해 여러 사목자들의 화법과 태도가 비교 대상으로 손쉽게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2010년대 중반까지 교회의 매체 연구자들에게마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동영

상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의 파급력에 힘입어 교회의 공식적 감독 대상으로 고려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가장 먼저 제안된 것은 2020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세미나에서 제시되었듯, 통상적으로는 서적과 음반, 일부 외국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되어 온 '교회 인가'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교구 홍보국이나 공식 매체가 아닌 채널들을 의식한 의견으로 짐작되며, 자유분방한 표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엿보인다.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재미 안에 의미를 담으려 노력하지만, 의미없는 유희가 오히려 장기인 유튜브에서는 때때로 교회가 순전한 즐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즐겼다는 것은 그 소재가 일상에 녹아들었다는 증거이며, 즐거움이야말로 그 소재를 무심결에 몸에 젖어들게 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유튜브를 감독의 영역으로 삼는다면, 별 의미도 명분도 없이 신앙과 교회라는 콘텐츠를 '갖고 노는' 유튜버들의 실험에도 자애로운 스승이 될 수 있을까. 🙏

성미술 이야기

먼저 다가와 품어주시는 하느님

정용모 신부, 서울대학교 성미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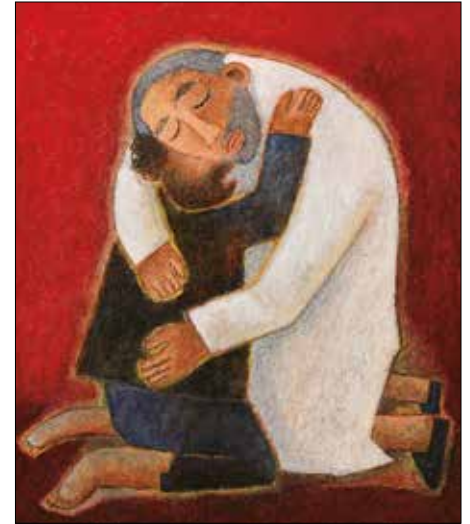
봄날의 햇살이 따사롭다.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했던 날에 움츠렸던 새싹은 고개를 내민다. 부활의 계절인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알려준다. 또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

우리가 성당이나 주변에서 보는 성화는 멀리 있는 듯한 신앙의 세계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화가들은 자신이 받은 재능과 노력으로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를 보여 준다.

수많은 성화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은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한 것이다. 탕자의 비유가 감동적인 것은 그 내용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기 때문이다. 루카 복음 15,11-32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알려준다. 탕자의 비유는 ‘복음서 중의 복음서’로 성서 전체를 가장 잘 요약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탕자의 비유를 표현한 작품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크 시대의 거장 렘브란트(1606-1669)의 그림이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Hermitage Museum)에 있는 이 작품 앞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 점의 뛰어난 성화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려 준다.

김옥순 수녀, <죽었던 내 아들>, 2018년, 혼합재료, 72.5×62cm. ©성바오로딸수도회 ▶



▶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를 감상하는 사람들, 에르미타주 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화가가 돌아온 탕자를 그렸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김 옥순 수녀이다. 그는 성바로떨수도회에서 수도자와 화가로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성화를 그리고 있다. 화가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주제로 삼았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루카 15,20)

남루한 차림으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 나가 그를 끌어안아 주었다. 아버지의 흰옷은 생명의 빛처럼 보인다. 그에 비해서 아들의 검은 옷은 죽음처럼 어둡다. 아들의 어두웠던 삶이 아버지의 밝은 생명 안에서 거듭 새롭게 태어난다. 아들이 신발조차도 신지 않은 것은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려준다. 동시에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한다. 붉은 배경은 하느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작품은 가르쳐준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시다. 언제나 참고 기다려주며, 먼저 다가와 고개 숙여 품어주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믿고 본받아 살도록 신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일찍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 주셨 듯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 품어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개인 후원:
김민정, 소성환, 이광수, 전윤주, 정은영

2021년 직장공동체 견진·세례성사 안내



직장사목팀에서는 2020년 견진성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상반기에 견진성사를 거행하고, 하반기에 세례성사를 진행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2021 한국CLC교육

CLC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따르는 국제 평신도공동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신학강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기초하여 하느님, 예수, 교회 등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현대 세계의 요청에 보다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평신도들을 양성하기 위한 강좌

기도훈련 기도 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평신도들을 위한 과정

영성강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성서 묵상을 바탕으로 영적성장을 돕는 강좌

침묵피정 침묵과 자연 속에서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특강 본당의 요청에 따라, 본당 상황에 맞게 2-4회 특강을 진행

| 구분 | 과정명 | 기간 | 장소 |
|------------|----------------------|-------------------|---------------|
| 신학강좌(6주) | 목요신학강좌 VI | 10/21~11/25(목) | 한국CLC |
| 기도훈련(6주) |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 26기 1/26~3/2(화) | 한국CLC |
| | | 27기 3/3~4/7(수) | |
| | | 28기 5/20~6/24(목) | |
| | | 29기 9/8~10/20(수) | |
| 영성강좌(6주) |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 서울 4/8~5/13(목) | 한국CLC |
| 침묵피정(2박3일) |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 여주 5/28~5/30(금~일) | 여주스승예수 피정의 집 |
| | | 시흥 11/5~11/7(금~일) | 성 바오로 피정의 집 |
| 특강 | 사순 / 대림 / 견진 / 기타 특강 | 요청 시 진행 | 본당 / 수도회 / 단체 |

* CLC의 계획 중인 강좌 대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쥐눈이콩 (Rhynchosia Nalubilis)

쥐의 까만 눈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해독, 풍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8월부터 꽃대에 손톱보다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서안태(鼠眼太)라고 하며 일반적인 쥐눈이콩으로 나물로 먹는다. 8월부터 꽃대에 손톱보다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우리농' 회원가입으로 생명운동에 함께 해요. Q

이번호에 소개한 쥐눈이콩은 서울대학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천주교 농부학교' 동문회 우리씨앗주머니분과에서 씨앗 물림을 통해 15년째 보전하고 있는 토종씨앗(서리태와 서목태) 중 하나입니다. 이름없는 도시농부들의 작은 움직임이지만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밭에서 직접 흙을 만지며, 제철마다 피고 지는 꽃과 풀벌레들을 통해 일상의 생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농 생명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마감 2021년 3월 26일(금)
교육 문의 02-727-2277

서목태(鼠目太)라고 하며 서안태에 비해 약성이 강해 약콩이라고도 부른다. 나물로도 먹고 볶아서도 먹는다.





Priest

a person, usually a man, who has been trained to perform religious duties in the Christian Church, especially the Roman Catholic Church, or a person with particular duties in some other religions: "Father" is the title of a Christian priest, especially a Roman Catholic or Orthodox priest.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